

에스겔3장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환상을 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사도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시대에 모든 말씀들을 상징으로 풀어 완전히 가려놓고 양떼를 속이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인데 아버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한 것 처럼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세상 신들을 다 제거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0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들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남 같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날개가 여섯 개 달린 짐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으로, 하늘의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구 가까이 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이렇게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통치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움직일 때 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는데 이 땅에서 비가 올 때 번개가 치고 천둥만 쳐도 겁이 나는데 이걸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오죽하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철장으로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요한은 이 하나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해서 올라가서 보았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 모습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옛날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덮는 그룹이었죠 원래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는데 타락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대 제사장들이 거기 일 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 들어가는데 그 대 제사장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들어오면 죽었어요 들어 갈 때 끈을 메어가지고 들어 갔어요 죽으면 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이 짝 갈라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옛날 염소의 피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 갈 수 있고 이 지성소는 바로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은 바로 지성소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다음에 혼은 뭇니까 성소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조명하는 가운데 성소에 금 촛대가

있고 차려놓은 빵(떡) 상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뜰과 같은 거죠 성전의 뜰과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뜰과 같기 때문에 육신이 어 성전 뜰이기 때문에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더러운게 묻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대야가 있어 가지고 항상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단을 통과 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제단 앞에는 문이 네 개 있어요 사 복음서를 통과해서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뭔가하면 그 제단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 죽으셨기 때문에 거길 통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향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첫째가 유대인이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준거예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생물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좌 주위에 있는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짐승이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네 짐승이 각각 네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면이 있어요 얼굴이 사면 이에요 우리는 한 면 아납니까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예요 그러니깐 동 서 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얼굴. 즉 창조의 얼굴중에 가장 으뜸가는 인간의 얼굴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뭐죠 야생동물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거죠 독수리는 뭐죠 날짐승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네 얼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대로 가서 본 걸 보게 되면 한 짐승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한이 본 짐승은 날개가 여섯 개 있고 여기 에스겔이 본 생물은 날개가 네 개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것이 스랍인지 그룹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온 건 스랍이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짐승이 스랍인지 그룹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덮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들도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가 있고 또 스랍도 관계있지만 스랍은 정결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갈 때 회전하지 않는다 아 방향을 틀때도 회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할 때는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 우리가 이걸 실감을 잘 못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요즘 유에프 본 사람도 깜짝깜짝 놀래지 않습니까 그게 조작된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걸 뉴월드오더(New World Order)와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대적할 하나의 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이예요 엄청난 빛이 나오는거죠 이건 다른 영적인 해석이 필요없어요 이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믿을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복신앙(祈福信仰)이 될 수 밖에 없죠 기복신앙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적이면 영적이란건 참 보면 대부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지로 다 믿거든요 그 영적이라는게 뭐냐 다른 영적인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 보고 성경을 읽고 이거 뭐냐 그러면 그대로라고 그러죠 그대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만 되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주고 읽으라면 그대로 믿을거라고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 실력만 되도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10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애들 다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어떤분이 나타났다고 주님만났다고 하는거예요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분은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으로 내려 오셔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걸 보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분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인지 알았겠습니까 그 분의 행하는 것을 보고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몰랐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성도들한테 그 분도 계시록 강의 하는 본인한테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건가? 의심도 갈 수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오래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말씀을 하나 하나 보지 않으면 안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말이죠 에스겔에게 주님이 뭐라면 그러시는가하면 그 네 생물 사이에서 책을 쥐시고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책을 내가 먹어버리라 너는 반역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민족이다. 너는 반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대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랬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처럼 완전히 먹어버려야 되는거예요 그래야만 반역하지 않는거예요 요즘에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반역합니까 두루마리를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먹어야 되는거예요 절절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역 안해요 전신갑주 입어야만 마귀에게 안 속아요 반역한다는건 반역한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에스겔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네 그 생물들이 지상에 이렇게 지상쪽으로 내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네 얼굴들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 바퀴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벽록색과 같고 그 넷이 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마치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의 네 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바퀴의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네 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 있는데 눈이 그런데 바퀴들이 생물들 곁에 있다고 그랬죠 곁에도 있으면서 위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는 배춧을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그들 그들 아래 바퀴사이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 바퀴의 생김새와 구조가 벽록색과 같다. 그리고 넷이 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마치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참 이걸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다 결국 두 개 바퀴가 중심축이 돼서 직각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갈 때는 네 면으로 간다. 회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네 짐승 거기서는 바퀴들이 있다는 얘길 안 했어요 이 바퀴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따라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좌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늘의 주위에 있는 짐승들은 짐승들에게는 바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네 생물에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이 날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로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가 결국은 이동하는 수단이 된 거죠 이걸 보면 주님이 환란 때 낫을 거두어서 곡식을 거두라 구름위에 앉으신 분이 말씀 하시죠 틀림없이 그 때 주님이 이동 하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들 날개 안에 날개 안에 눈들이 가득 있다고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눈이 엄청나게 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의 크기는 몰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다 상징이에요 신학교에서 전부 상징으로 풀어요 요즘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그걸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누가 알레고리라고 그러면 그거 틀렸습시다 그래야 되요 알레고리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알레고리 그러면 굉장히 유식하게 알레고리 그러면 보통 평신도들은 아 뭔가 있는 가 본데 그러는데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깐 영적으로 푼다고 그러는거고 이 요즘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봐야 믿는다 이런 얘기죠 봐야 믿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의 예언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으니깐 이걸 썩 돌려가지고 설교는

해야 되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썩 돌려가지고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도 영적이라고 그러고 짐승의 표도 영적이라고 그러고 전부 썩 연막을 쳐 놓으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소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지요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어둠을 갖다 놓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여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찬송 보세요 얼마나 어린아이 찬송인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습니까 요즘의 복음 성가에 있는 것 보다 몇 배로 있잖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면류관에 반짝반짝 보석이 있는 걸 그들이 그 때부터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썩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철학적으로 되 버렸습니다. 완전히 철학적으로 완전히 철학적으로 되어가지고 철학이란 뭔가 하면 그거 그냥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썩 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도 썩 기르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깨끗하죠 옷도 깨끗하게 입구요 깨끗합니다 산뜻합니다 여러분 어 그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눈이 가득 하더라 여러분 요즘 유에프오(UFO) 보면 말이죠 원반이 이렇게 있는데 번쩍번쩍하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창문이 짝 이렇게 있죠 창문이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물론 백말을 타고 오시지만요 틀림 없이 틀림없이 백말을 타고 오시는데 이런 보좌가 번쩍번쩍 하고 움직일 거예요 어 저거 바로 유에프오 아니냐 눈이 엄청나게 많을 거죠 여기 본 것처럼 에스겔이 본 것처럼 눈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번쩍번쩍 하죠 그러니까 눈이 뭐 우리 인간의 눈이었습니까 큰 빛이 나고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그 불꽃 같은 눈들이 짝 있을 텐데 야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죠 19절부터 보면 생물들이 회전할 때면 바퀴들이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려서 그 영이 가려는 것은 어디든지 이 땅에도 내려 왔네요 보니까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음이여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음이라. 여기 보면 생물들 자신들이 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 한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 영들이 아닙니다. 한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럴 때마다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가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다 그래 생물이 넷인데 생물의 영이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결국 네 생물은 뭐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바퀴들도 한 몸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광경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어들일 때요 야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시죠 그러나 아마겟돈에 나타나실 때 곡식을 거두러 나타나시고 악한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넣어가지고 밟을 때 던져넣을 때 틀림없이 이것을 타고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땅에 오실 때 자 1장까지는 계속 그 이 모습이 나옵니다 2장부터 썩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아 그래서 21절 보면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음이라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같아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졌더라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향하여 곧게 펴 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로 가졌는데 그것들로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들이 갈 때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의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같이 떠들썩한 음성이더라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드리우더라 그들의 머리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한 음성이 있더니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드리우더라."

색깔이 말이죠 푸른색이 아니라고 그래요 파란색깔이 아니고 수정의 색깔인데 투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려울 정도로, 어느 정도 두려운가 하면 눈이 부시도록 이젠 뭐 당연한 거죠 아찔 한거죠 두려운 수정의 색깔 여러분 그 셋째 하늘 밑에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수정같은 유리가 있다고 열어 있다고 그랬죠 읊기에 보면 이것이 열여섯도다 이것은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입니다. 그 열어 있는 그 열음이 이게 수정 같다 우리가 보는 열음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는 지금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 그랬죠 그러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사도요한도 올라 갔을 때 유리바다를 봤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는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 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날개 소리가요 폭포 소리 여러분 나이가라 가 보셨습니까 그 나이가라 가보면 폭포소리 대단하죠 어떨때 핑음이 나기도 하구요 핑 하는 소리 나기도 하고 벼락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 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이 폭포소리죠 야 그 폭포 그 나이가라 폭포만 가 봐도 그 밑에까지 가 보면 말이죠 아유 엄청나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나아기라 폭포정도가 아니겠죠 이거는 정말 요한 같은 사람도 에스겔 같은 사람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못 봐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려고 있다가 안 믿고 있다가 말이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걸 보면 오죽하면 그냥 장군들, 왕들이 숨어가지고 막 산들아 나를 가려라 나를 가려라 그러죠 바위들아 나에게 떨어져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아 바위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라도 가려가지고 내가 못 보게 해 달라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말이죠 번쩍하거던요 그 섬광 보기만 해도 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젠 뭐 원자폭탄 정도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이걸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루마리 책을 다 먹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습니까 설교 한 편 듣고 가잖아요 성경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워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않는 사람은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되요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젠 뭐 엄청난 상상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처럼 그 주위에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도다".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올라가서 비슷한 증거를 했죠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았는데 앉으신 분이 용모가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였더라." 그렇죠 그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주님의 보좌가 바퀴와 함께 또 네 생물과 함께 움직이시는거다 보좌가 움직이신다. 요한은 보좌의 모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사파이어모양 같다고 했어요 이게 보좌가 아닙니까 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우리에게 보좌 되어서 보이는 거죠 또 에스겔이 본 것은 보좌에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요한은 보좌에 한 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빛이 나니까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너무나 빛이 나니까 더 이상 뭐 얘기 할 수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요한은 거기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나오는데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같은 보석들로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색깔이 있다. 그런데 에스겔은 불과 광채의 모양으로 색깔을 표시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겁니다 전부 같은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놋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똑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우렁찬 음성으로 들렸어요 깜짝놀랐어요 두 번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나가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그 다음날 나갈 일이 생겼어요 어유 이게 주님의 명령이구나 어떤 분 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더니 어떻하면 좋겠냐고 어 그러잖아도 내일 전도팀들이 나가는 팀들 따라 가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다음 날 나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음성은 말이죠 무섭고 깜짝놀랐죠 엄청나게 무섭죠 그 때 내가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사역을 하려고 해요 사역을 하는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는 것은 뭐죠 순종하는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요. 우리는 도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순종이에요 그런데 대개 순종을 안 하고 뭔가 일을 할려고 그래요 프로그램 만들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선교회를 만들어 뭔가 하고 그래야 되는 건줄 알아요 아니예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해요 길거리 나가라면 길거리 나가고 이 에스겔과 이 요한이 본 것을 얘기 한 것이 달라 보여도 결국은 결국은 같은 보좌인데 에스겔이 본 보좌는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요한이 본 보좌는 휴거된 성도들이 보는 보좌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 안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것도 안 믿어지는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죠 구약의 열쇠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미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아니죠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보는 거죠 사도요한이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 안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힘쓰라고 한 것은 뭔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런 애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있죠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큼니까 이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공짜로 먹잖아요 지금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처럼 강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먹게하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루마리 책의 일부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요한을 통해서 올라가서 볼 것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 자기 때문에 증거 할 수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므로 증거 하는 저희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이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 말씀을 증거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장소에 갈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 하므로 눈이 뜨게 하고 소경들이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병어리가 입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